



◀ 어항협회는 지난 2일 협회 회의실에서 사무식을 갖고 올해를 '조직이 일하는 대약진의 한해'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역점을 두기로 하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배평암 어항협회회장은 지난 5일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방문 가칭 "어촌·어항법"의 조기 제정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어항·어장의 연계 개발 및 해양환경 정화사업 관련예산의 추가 확보 등에 대해서 협의했다.



◀ 2004년 수산인 신년교례회가 지난 9일 수협중앙회에서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수산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어항협회-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 크린오션호 위탁 운영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다기능 해양 폐기물 수거선 "크린오션"호를 완공했다. 전용수거선 "크린오션"호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크린오션호는 선박 안전상 정화선박의 접근이 불가능한 서해안 수역의 부유 또는 침전된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건조된 다기능 해양 폐기물 전용 수거선이다.

해양수산부는 서해안에서 안전성 높은 해양 폐기물 전용 수거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2000년 바지선 활용 수거 시스템 설계와 바지선 주요 제원 및 안전성 평가에 들어갔다.

2001년 다기능 수거 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실험역 시험과 선박형 해양 폐기물 전용 수거선 설계를 거쳐 2002-2003년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체 제작 및 수거 장비를 보완, 지난해 10월 다기능 해양 폐기물 전용

선박제원은 총톤수 99톤, 기관 320마력 디젤기관 2기, 주요치수는 길이 26.96m, 폭 10.00m, 깊이 2.30m이며 속력은 만재시 7노트, 선형은 바지형, 승조원은 5명, 주 정박항은 인천항이다.

주요장비는 다관절 수거 시스템을 설치, 침적 폐기물 및 부유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으며 갈쿠리시스템으로 침체망 수거가 용이하며 와이어 절단기가 있어 수거폐기물의 절단도 가능하다.

한국어항협회는 시운전 등 준비작업을 거친 후 오는 3월초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해안 해양 폐기물 수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